

마테데스



표어 : 믿음이 기쁨되고 용서가 감사되는 교회

은석교회는



섬김과 봉사로 주님의 길을
가기 원하되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나를 보지
않고 주님만 보기를 힘씁니다.



현재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특성한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기를
노력합니다.

시작과 끝은

신윤식

우리에게 시작과 끝은
같은 모습입니다.
빈 주먹 움켜쥐고
세상에서 처음 눈 떠 시작한 것처럼
모두 내려놓은 빈 손 되어
세상 끝에서 눈 감고 물러날 때도
그렇게 시작과 끝은
너무나 같은 모습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알리며
서서히 붉은 빛 솟아오르는 여명의 모습도
하루의 끝을 알리며
서서히 그 빛 감추는 황혼의 모습도
그렇게 시작과 끝은
구별하기 힘든 같은 모습입니다

시작과 끝 사이 잠시 머무는 동안
이유 없는 아픔과 슬픔이
눈물 되어 스며들고
뒤돌아보면 아무 것도 잡히지 않는
그저 하루 해 뜨고 지는 일인 것을

어이해 우리는 몸에 손에
날마다 더 많은 것을 걸치는
다른 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0-5831-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1.12.25

발행호수 제19권 48호

성 탄은 하나님께서
 멸망의 존재로
 세상에 머물고 있는 우리
 를 찾아오신 사건을 뜻합
 니다. 인간은 대개 신을
 멀리 높은 하늘 어딘가에
 서, 또는 인간이 알 수 없
 는 신비한 어딘가에서 인
 간을 지켜보고 계시거나
 착한 자는 상을 주고 악한

자는 벌을 주는 존재로 생각하는데, 성탄은 낮고 천한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죄악 속에 뒹굴며 살아가는 우
 리를 더럽다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간섭하시면
 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큰 위로
 를 받게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
 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힘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을 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만약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힘으
 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내야 하는 것이라면 신앙의 삶
 은 참으로 힘들고 피곤하고 고달팠을 것입니다. 하나님
 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고스란히
 지켜야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규례
 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이스라
 엘의 고달픔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탐욕과 갈등
 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셔서 그 모
 든 더러운 것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을
 가심으로써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건지시고 자유케 하
 신 크시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해야 하는 은총
 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탄을 이러한 은총의 사건으로 바라보며 나
 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기 보다는
 다만 성탄이라는 날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가득한 것이
 지금의 세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세태에서
 성탄을 얘기하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이라
 는 은총의 사건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
 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주일오전설교
 눅 2:8-14

목자들의 경험

되시고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높임 받
 게 되는 대 역전을 가능하게 하신 성탄의 사건에서 우
 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
 는가를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상상합니다. 그
 리고 인간의 상식에 부합되는 하나님을 만들어 내고 하
 나님이라며 섬깁니다. 수십 년 아닌 평생을 교회를 출
 입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으면서도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가장 근본이 되는 진리조차 모르는 사람
 들이 많습니다.

매년 성탄절이 되면 여기저기서 예수님의 탄생을 애
 기하는 소리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악하고 더러운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다는 근본 진리
 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주일성수를 하지 않으면 벌
 을 주고 십일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복을 주지 않는
 아주 이상하고 껄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섬기는 사람
 들의 공허한 놀이일 뿐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자기 즐거움을 위한 놀이로
 그쳐버린 것이 지금의 성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성탄을 경험한 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목자
 들은 밖에서 양을 지키며 밤을 지내다가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는 가운데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는 천사의 외
 침을 듣게 되는 참으로 이상하고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우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구
 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동원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만족이 될 수도 없기에 구원은 절대
 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할 구주 그리
 스도가 나셨다는 소식이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목자들의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췌었을 때 크게 무서워했다고 말합
 니다. 무엇이 그들을 무서워하게 했을까요? 주의 영광
 이 비췌는 모습이 공포스러웠기 때문일까요?

주의 영광을 대할 때 인간이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무
 서움입니다. 이것이 주의 영광을 대한 인간의 정직한
 반응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주의 영광 앞에서

인간은 악하고 더러운 존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라”** (사 6:5)라고 고백하게 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구원 밖에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구주가 오셨다는 소식이야 말로 천사의 말 그대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사가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깊숙이 들어와 자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주가 나셨다는 이 소식이 기쁨이 되어야 하고 이 기쁨이 성탄과 우리들의 신앙에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탄의 소식을 듣는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집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 자신을 채우고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도 내 자신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부족함을 느낄 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이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주가 나심으로 이제 우리는 내 스스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구주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함께 하셔서 내가 채워지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주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이며 만족이 되시고 충만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 노력을 앞세울 때는 항상 부족하지만 구주가 함께 하신 신자에게 부족함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가 하나님이 찾아오심은 놀라운 은총의 사건일 수밖에 없으며,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의 심령 깊숙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어 있는 아기를 보라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고 말합니다. 구주가 나신 사건에서 목자들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그저 가서 구유에 누인 아이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일 뿐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단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사하고 찬송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구유가 있는 곳은 냄새나고 더러운 짐승의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나셨고 거기에 누어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은 낮고 천하고 냄새나는 곳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목자들이 가서 구주를 보게 된 그곳은 짐승의 구유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게 될 수 있는 곳은 냄새나고 더러운 곳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그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싼 옷으로 겹을 치장하여 화려하고 깨끗하게 보인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은 냄새나고 더러운 시궁창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보려면 냄새나고 더러운 내 마음 속 깊이 내려 가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나셨다는 것 또한 은총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구유가 아니라 깨끗하고 거룩한 성전과 같은 곳에서 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보기 위해서 내 속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써도 거룩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내 속의 상태를 보게 될 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구주가 구유에 나셨다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유에 누인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보기보다는 나를 봅니다. 나에게 집착한 채 내가 얼마나 신앙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선하고 착한 사람인지 자신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한 일을 보면서 자신이 영광스런 존재로 드러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의 성탄 경험은 오늘 우리들의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성탄의 사건은 이천년 전 먼 팔레스타인 땅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일어나야 하는 사건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역사적으로나 물리화적인 경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나 물리화적인 시각에서 예

수님의 오심은 일회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동일한 사건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역사적 의미에서 예수님은 오직 한번 세상에 오셨고 한 지역에서 한 세대만을 사시다가 하늘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수많은 신자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탄생하십니다. 이렇게 오늘날 참된 성탄은 우리 영혼에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탄생하시는 그 자리는 앞서 말한 것처럼 냄새나고 더러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냄새나는 심령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고 냄새나는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구주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의 사건을 과거의 사건으로만 인식할 뿐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사건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탄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에게 경험되어야 할 사건입니다.

가령 성령의 잉태된 동정녀 사건을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사건으로 생각하지만, 오늘날 신자의 탄생은 분명 성령으로 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남자 여자라는 인간 관계를 통해 나지 않으신 것처럼, 신자의 탄생 또한 인간적 관계와는 전혀 무관한 채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보면 신자의 탄생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그 의미가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탄절은 시끄러운 행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구주 그리스도의 나심을 수백 수천 개의 트리로 장식하고 축하하는 것보다는 한 영혼에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탄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일을 쉬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목자의 경험은 오늘 우리들의 경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탄의 사건은 역사에 묻혀있는 사건이 아니라 매일 같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경험되어야 할 사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심령에 자리한 예수님을 보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냄새나고 더러운 구유임을 잊지 마십시오.

현 대 교회에 있어서 부흥의 문제는 외면할 수도 무관심할 수도 없는 민감한 사항입니다. 부흥이 곧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은혜 주심의 증거로 제시되고 있으며 목사에게는 자신의 목회 능력과 열심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열매이기에 오직 부흥을 중심으로 교회의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다수의 교회가 부흥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부흥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고 정당화하는 세태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경을 살펴봐도 교회 부흥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부흥을 말하는 사람들도 성경 구절을 제시하면서 부흥이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인 것처럼 말하지만 부흥의 당위성을 말하기 위해 인용된 성경들은 모두 교회 부흥과는 관계가 없으며, 성경 해석 또한 부흥을 주장하기 위해 말을 꺾어맞춘 것일 뿐 올바른 해석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부흥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구절 중의 하나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내 집'의 의미가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설사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일반 교인이라고 해도 조금만 성경 지식이 있고 상식이 있다면 이 구절을 사람을 강권해서 데려다가 예배당을 가득 채우라는 뜻으로는 해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흥이라는 유희에서 허우적거림으로써 이미 성경에 대한 안목이 닫혀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성경을 이용하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 성경에 단 한번 '부흥'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교회 부흥이 마치 주의 일인 것처럼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

주일오우설교

합 3:2

교회와 부흥

(교회18강 12.11설교)

이야말로 성경의 본 뜻을 무시한 채 오로지 자신의 말을 하기 위해 성경을 이용하는 인간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또한 이상한 것은 교회 부흥이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의 사명이라면 신약성경에서 사도들은 왜 교회 부흥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여기저기서 외치고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부흥은 교회의 사명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말을 전혀 외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사도들이 목숨을 다해 전했던 복음은 교회 부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이 지향하는 것은 생명이지 교회 부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의미로 본문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유다는 앗수르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아방나라에 의해 고통을 받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을 한 선지자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화를 당할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 말씀하셨고,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게 된 것은 유다라고 해서 고통을 당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다 역시 하나님이 말씀한 화를 당할 자의 기준에 해당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화를 당할 자는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사람,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 이웃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 등이었습니다. 사실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화를 당할 자의 기준에서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선지자가 본문의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내용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선지자가 말하는 부흥은 유다의 부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라는 한 국가의 부흥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본문의 ‘부흥’이라는 단어를 교회 부흥으로 연결하여 말하는 것은 성경의 앞뒤의 내용을 전혀 살피지 않고 오로지 본문 한 구절만을 가지고 자기 구미에 맞도록 각색하여 말하는 수준일 뿐입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부흥은 유다의 부흥도 아니고 사람의 일의 부흥도 아니라 주의 일의 부흥입니다. 따라서

선지자가 말하는 주의 일이 유다가 강대국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교인수가 늘어가는 것도 아니라면 이 구절을 교인 수가 늘어가는 교회 부흥의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일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내용에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는 것은 긍휼을 베푸심으로 진노를 거둬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만약 진노를 거둬 달라는 의미로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노를 피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긍휼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이 같은 하나님의 긍휼을 알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유다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유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유다를 붙들고 있음을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말하는 주의 일이며 이런 의미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지자가 생각하는 주의 일의 부흥은 긍휼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침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께 있어야 하는 참된 부흥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부흥은 있지만 그것은 교인 수가 늘어가는 부흥이 아니라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긍휼의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긍휼로 감사하는 자로 고침 받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심령의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주의 일은 지금도 여러분께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진노의 자리로 끌어내며 그 자리에서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함께 하고, 세상의 복으로 가득 넘치게 해주는 하나님이 생명이 아니라 진노가 당연한 나 같은 자를 건지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긍휼의 하나님이 생명이심을 알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행해지는 주의 일이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 주의 일의 부흥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이 같은 부흥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나오면서 잊기 쉬운 것은 나 또한 진노에 해당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도 화 있을진

제'에 해당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효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면 하박국처럼 항변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진노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나의 실체를 제대로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죄의 깊이를 보게 하며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구원이 아니라 진노이며 심판임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심판이 당연한 우리가 구원에 속하게 된 것이 공효로 인한 것임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효를 감사하고 찬송케 하시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교인 수에 관심을 두시겠습니까? 교회 재정에 관심을 두시겠습니까? 주의 일이라는 것이 교인 수를 늘리고 재정이 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교인 수를 늘리는 것이 정말 주의 일이라면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숫자가 늘어가는 것이 옳습니다. 모든 교회가 동일한 규모로 부흥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교회 부흥을 주께서 원하시는 주의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 한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인 1 전도하기' '배가 운동' '태신자 맺기' 등등 부흥을 목적으로 하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 성경에 관심이 없는 현대 교회 실상이 참으로 심각한 지경에까지 도달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 부흥은 단지 인간을 만족케 할 뿐이지 하나님의 기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공효와 자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효와 자비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 같은 신자로 세워 가시기 위해 일하십니다. 이러한 주의 일로 인해서 우리는 공효를 알고 감사하는 심령으로 고침 받으며 자라납니다. 이것이 주의 일의 부흥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에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반응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하

남에게서 떠난 자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자인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즉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여기는 많은 것들과 연관되어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이면 꼬박꼬박 예배당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성경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으며 마음에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어디를 봐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인으로 인정될만한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로 여길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우리가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수없이 듣는다고 해도 그 말에 마음이 움직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을 대하는 신자로서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신앙인으로 여기는 것이 본문과 같은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이미 돌아와 있는,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에는 해당되지 않는 자로 여기는 것은 선부른 판단임을 알아야 합니다. 유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유다도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겼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을 떠난 자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로 돌아오라'는 선지자의 말에 대해서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유다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고 떠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우상과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까? 우상을 형상이 의미로만 이해하면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신자일 것입니다. 부처상처럼 어떤 형상을 앞에 두고 경배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해도 과연 우상 섬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상은 하나님 외에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힘으로 여기는 모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누구도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수요일설교

렘 4:1-4

마음 가족을
베고

(12강 12.7일 설교)

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우상과 상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앞서 말한 대로 우상을 눈에 보이는 형상이 문제로만 대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상 섬김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골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고 말합니다. 엡 5:5절에서도 탐하는 자를 우상 숭배자로 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자신을 우상 섬김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유다가 우상을 섬긴 이유는 이방인들이 소유한 것에 대한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처럼 힘을 가진 강대국이 되고 싶은 탐심의 마음이 이방인의 신을 끌어들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인으로 산다고 해도 탐심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정답이고, 따라서 우상을 섬긴 유다를 향한 ‘내게로 돌아오라’ 는 말씀 또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로 인식 하고 인정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본문의 말씀에 이끌려 말씀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면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고 말합니다. 만약 그리하지 않으면 유다의 악행에 대해 분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언급하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마음 가죽을 베면 유다의 모든 악행에 대해 용서하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마음 가죽을 베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의미합니다. 마음의 가죽이란 마음이 가죽처럼 질기고 단단한 것으로 덮여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단단하고 질긴 것으로 덮여 있으니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가죽으로 덮여 있기에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신들이 악행을 행하는 자라는 것도,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라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면서도 죄에 대한 회개가 없고, 회개가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

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자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유다의 악행에 대해 추호도 용서하지 않고 심판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 속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 모든 사람은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드러난 자기 마음에 대해 떳떳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 가죽을 베게 되면 자칭 의인은 사라지는 것이고 대신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며 이들은 자연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 2:20절)고 자신 있고 대담하게 자기 체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도 바울도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롬 7:19절)는 고백을 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롬 7:24)고 탄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 앞에서 과연 ‘나는 다르다’ 고 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도의 고백은 마음 가죽이 베어졌을 때 가능한 고백입니다. 자신이 부끄러움과 더러움과 악함을 생생히 바라보는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실상을 생생히 보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은 온전히 예수님에게로만 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 가죽을 베며 우리의 심령에 파고들 것입니다. 착한 행동으로 공공 싸매어 감추어 놓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파헤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속을 보게 되신다면 부끄러워하십시오. 감히 구원을 바랄 수도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더러운 마음에 오시고 존귀한 피로써 모든 더러움을 덮어주시고 거룩하다고 하신 크고 높으신 은총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함께 한 신자의 인생을 복되다고 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33장
교 독 : 120(성탄절2)
기 도 : 조규현 장로
찬 송 : 123장
성 경 : 눅 2:8-14
말 씀 : 목자의 경험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112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7장
축 도 : 설 교 자

■ 오후예배 ■

2시 2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83장
기 도 : 신미정 집사
찬 송 : 435장
성 경 : 엡 1:22-23
말 씀 : 교회는 그의 몸(교회20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208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예레미야 강해(15강)

■ 교회소식 ■

1. 201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사다난한 한해였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2. 오후예배 후에는 작은 행사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3. 다음주에는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4. 1월부터 매주 화요일 1:40분에 신윤식 목사 10분 설교가 CBS(FM 103.1)에서 라디오로 방송됩니다.



다음주 기도

오전 - 이성희 장로 오후 - 김정덕 집사

고난의 의미③

고난의 의미에 대한 완벽한 답은 사실 찾을 수 없다. 신자 개개인에게 주어진 고난을 고난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지 않으신 다음에야 왜 고난이 있는지 그 이유와 의미를 완벽히 알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설사 고난의 이유와 의미를 알게 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다. 고난의 이유와 의미를 알게 된다고 해서 고난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고난으로 인한 고통 또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혹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준 것이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고 하신다면 오히려 주어진 고난 후의 배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희망을 갖고 견딜 수는 있겠지만, 신앙을 연단시키고 인내를 배우게 하며 하나님을 찾는 신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 고난의 의미라면, 이 같은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알게 되었다면 과연 고난에 대한 자세가 달라질 수 있을까?

문제는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사는가에 있다. 육신, 즉 몸의 평안과 안락을 꾀하는 인생을 추구하고 있다면 고난의 의미와 이유를 완벽히 알게 된다고 해도 고난을 피하고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비록 신앙적 문제로 인한 고난이라고 해도 몸의 평안에 모든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 고난은 오로지 벗어나고 싶은 대상일 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신자라면 몸의 평안과 안락보다는 고난에서라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할 것이고, 고난의 고통보다는 고난의 의미를 배움으로 참된 믿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더 소원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개는 자신의 고난에 대해 억울하다는 생각을 한다. 고난을 받을 만큼 남에게 나쁜 짓 한 것도 없고 잘못 살지 않았다는 자기 긍정으로 고난을 겪는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처럼 고난을 겪을 이유가 없는 자신이 고난을 겪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생각이 앞서게 되는 것이다. 고난에 대해 억울하다는 생각이 앞서게 되면 성경이 고난에 대해 어떤 말을 한다고 해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원하는 것은 억울한 고난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말한 대로 '왜 신자에게 고난이 있으면 안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평생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기에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불드심의 결과인지 아니면 신앙에 대한 자신의 결과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만약 자신의 힘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어온 것이라면 그는 그동안 자신을 믿은 것이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으로 산 적도 없고 신앙생활 한 적도 없으니 '평생을 신앙으로 살았는데 고난이 웬 말이야'라는 말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자신이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불드심으로 믿어온 것이었다면 어떻게? 그 역시 다르지 않다. 믿음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불드심의 결과라면 믿음에 있어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으며 따라서 고난이 억울하다는 말을 할 자격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